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1. 대내외 정세 1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2021년도 우즈베키스탄 실업률 9.6%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산업협력 확대 및 현지와 방안 논의
- 우즈베키스탄-러시아 정상, 수교 30주년 축전 교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나브루즈 기념 축하 연설
- 외교부, 우크라이나 체류 자국민 추가 대피
- 터키 대통령 방우
-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원방안 논의

2. 경제·산업 동향 4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회·경제 발전방안 논의
- 농업부, 식품 공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결정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조세 분야 개선방안 논의
- 우즈베키스탄-EBRD, 협력 현황 및 전망 논의
- 우즈베키스탄, 제1차 타슈켄트 국제 투자 포럼 개최
- 2022.1.1. 기준 우즈베키스탄 대외채무 396억불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내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3. 에너지·인프라 동향 8

- 터키 Odash Enerji, 호레즘주 화력발전소 가동 착수
- 중앙아시아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 발표
- 프랑스개발청(FAD)-유럽위원회(EC), 우즈베키스탄 하수도 시스템 개선 지원
- 수리한다리아췌 화력발전소 건설 착수
- 에너지부, IFC 및 EBRD와 협력계약 체결
- 시르다리아췌 복합화력발전소 PPA 체결
- 타슈켄트주 화력발전소 가동식 및 시르디라야췌 화력발전소 착공식 개최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 소 Afrosiab st. 7, Tashkent, 100029, Uzbekistan
전 화 +998-71-252-3151~3
이 메 일 uzkoremb@mofa.go.kr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z-kor/index.do>

※ 본고의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 관련기관, 언론 등 발표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내외 정세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4.14(목) 14:00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238,176명(완치 236,127명, 사망 1,637명)이며, 지난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
 - ※ 백신접종 현황(위생·공중보건청) : 4.13(수) 기준 △1차 접종자 20,030천명(56.8%), △2차 접종자 16,095천명(45.6%), △3차 접종자 13,664천명(38.7%)
- 3.16. 코로나19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16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여권 또는 백신접종증명서(QR코드 필수)를 소지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되며, 카자흐스탄 및 타지키스탄과의 국경을 통한 육로 이동 제한도 해제되었다고 발표
 - ※ 백신여권, 백신접종증명서,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속진단검사 진행
- 3.23. 보건부는 3.22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명을 기록하고 3월초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팬데믹 상황의 완화세 강조
- 4.1. 보건부는 21.4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1년간 백신 접종에 참여한 총 인구는 당초 목표 2,100만명 기준 92.6%인 1,900만여명이며, 18세 이상 국민의 74.6%(1,590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

□ 2021년도 우즈베키스탄 실업률 9.6%

- 3.7.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1.1. 기준 우즈베키스탄 실업률은 전년동기비 0.9%p 감소한 9.6%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실업자 144만명 중 청년층(16~30세)은 15.1%, 여성은 13.3% 비중 차지
 - ※ 공식 노동자 수는 620만명, 비공식 노동자 수는 580만명
 - ※ 실업률 추이: ('17) 5.8% → ('18) 9.3% → ('19) 9.0% → ('20) 10.5%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산업협력 확대 및 현지화 방안 논의

- 3.1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산업협력 확대 및 현지화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여 '2022 제품 생산 및 산업협력 확대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국가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생산 현지화, 산업발전 등을 강조

※ 1.24. 대통령령에 따라 '2022 제품 생산 및 산업협력 확대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2,455개 프로젝트를 통해 37조숨 규모의 새로운 제품 생산이 시작될 예정

- 특히 △수입품의 생산 현지화를 위한 기업 참여 촉진, △대기업과 지역 생산자 간 협력 구축,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 확대 적용 등을 지시

□ 우즈베키스탄-러시아 정상, 수교 30주년 축전 교환

- 3.20.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우즈베크-러시아 전략적 동반자 및 동맹 관계는 공동의 노력으로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양국 국민 간 우정이 견고해졌으며, 향후 우호 및 다각적 협력 관계 발전,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거두고 CIS, SCO 등을 통해 건설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및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 확신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나브루즈 기념 축하 연설

- 3.2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내 개혁 지속을 위한 'New Uzbekistan' 발전전략 및 '인간의 이익 보장 및 마할라 발전의 해'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수백 개의 기업, 도로, 통신, 주택, 유치원, 학교, 대학교, 의료 기관, 문화 및 스포츠 시설, 공원 등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
- 이어 우즈베크 국민 모두의 작은 고향인 마할라(Mahalla; 마을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이 곧 국가의 평화와 번영이 된다고 마할라의 역할, 권한, 가능성 확대 필요성 언급
- 또한 국가 발전을 책임질 청년층에게 현대 지식과 직업을 갖추고 국가와 민족에게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 세계에 우즈베키스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확신

□ 외교부, 우크라이나 체류 자국민 추가 대피

- 3.24. 외교부는 3.23. 카토비체(폴란드)~타슈켄트 노선을 추가 운항하여 우크라이나 체류 자국민 146명을 본국으로 추가 대피시켰으며, 2.28.~3.24.간 특별 항공편 총 27편으로 6,030명을 귀국시켰다고 발표

□ 터키 대통령 방우

- 3.29.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과 다각적 협력 발전과 지역, 국제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정치, 의회, 무역, 경제, 문화 관계 강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무역, 경제, 투자 네트워크 강화 등 중요성 강조

※ 2022년은 우즈베키스탄-터키 수교 30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 양국 정상은 제2차 우즈베크-터키 고위급 전략적 협력 협의회 회의 계기 최근 △교역 규모 2.5배, △합작기업 수 5배 증가 등 무역 및 투자 협력 성과를 언급하고 무역, 경제, 투자, 교통, 섬유산업, 에너지, 농업, 보건, 문화 교류 등 주요 협력 방향 논의
 - 동 회의 결과로 양국 정상은 △우즈베키스탄 개혁 지원, △민관협력사업 도입, △과학, 교육, 예술, 영화, 관광, 정보 분야 협력 강화 합의 / △특혜무역협정, △고용·노동 분야 협력 MOU, △건설 분야 협력 MOU 등 총 9개 서류 및 공동성명문 서명

□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원방안 논의

- 3.31. 우무르자코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제3차 아프가니스탄 인접국 장관급회의(중국)에 참석하여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협력 강화, △아프간 임시정부의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기준 마련 등 강조하고 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 협력 지속 의사를 표명
- 또한 동 회의에서 아프간 내 사회, 경제적 상황 안정화, 대내외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아프간 위기의 평화적 해결, 포용적 정부 수립, 인권 보장, 테러 근절 등을 위한 노력 통합을 강조

※ 동 회의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주재하였으며, 러시아, 중국,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및 정부 대표 참석

- 3.31. 노로프 외교차관은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의무 관련 유엔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프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의 관심 지속 및 구체적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 유엔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강조

※ 동 회의는 유엔이 영국, 독일, 카타르 정부와 공동으로 아프간 내 유엔의 인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과 아프간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개최

※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식품,약품, 의류, 석탄 등 인도적 지원 제공, △테르메즈市에 운송·물류 허브 설립 제안, △마자리-샤리프 국제공항 재건 공사 진행

2. 경제·산업 동향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소비(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산업생산(조숨) : ('21.2월) 55.3 → ('22.2월) 66.7(20.6%)('21년: 451.6)
- 소매판매(조숨) : ('21.2월) 28.7 → ('22.2월) 37.1(29.3%)('21년: 249.5)
- 물가(CPI)(%) : ('21.2월) 11.4 → ('22.2월) 9.7(전월비 0.5%)('21년:9.98)

■ 대외교역(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총 교역액(억불): ('21.2월) 47.2 → ('22.2월) 87.3(84.9%)('21년:451.6)
※ '22.2월(억불): 교역 87.3(84.9%), 수출 41(173.2%), 수입 46.3(43.8%), 수지 △5.3
- 對한 교역(억불): ('21.2월) 1.7 → ('22.2월) 4(128.8%)('21년:18.9)
※ '22.2월(백만불): [우통계] 교역 401.5(128.8%), 수출 5.7(1.8%), 수입 395.7(133%), 수지 △390
[韓통계] 교역331(45.8%), 수출 4(66.7%), 수입 327(46%), 수지 △323
*출처: 한국무역협회

■ 금융·외환(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중앙은행

- 기준금리(%) : ('21.3월) 14.0 → ('22.3월) 17.0(3%p)
※ 20.9월 이후 14%를 유지, 최근 러-우 사태 이후 22.3.17. 17%로 인상
- 숨/달러 환율 : ('21.3월) 10,475 → ('22.3월) 11,400(절상률 5.2%)('21년末:10,837.6)
- 외환보유고(억불): ('21.3월) 332.7 → ('22.3월) 353.6(금보유량 207.2)('21년末:351.4)
- 대외채무(억불): ('21년) 396(국가채무 237)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회·경제 발전 방안 논의

- 3.7.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여 22.1~2월 간 △수출액 17억불(전년동기비 20% 증가), △투자유치 6.8억불, △신규 일자리 7천개 이상 창출 등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투자 및 수출 증가와 식량 시장 내실화를 위해 △물류 문제 해결, △국내 소비 시장 내 가격 안정화, △주요 농산품 재배량 확대 등 방안 논의

□ 농업부, 식품 공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3.16. 농업부는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한 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해 밀, 밀가루, 설탕에 대한 △재배규모 확대, △수입량 증대, △수입세 인하 등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

※ 2022년도 우즈베키스탄 밀 재배량은 767.9만톤, 설탕 생산량은 600만톤 예정

□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결정

- 3.17. 우즈베크중앙은행(CBU)은 최근 △주요 교역국 내 환율 변동,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인상,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위험성 증가 등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 및 물가상승 제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외부 위험 요소의 영향 완화 등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보장을 위해 기준금리를 14%에서 17%로 인상기로 결정

※ 우즈베크중앙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식품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9월 이후 기준금리를 14%로 유지해오다가 1년 반만에 인상 결정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조세 분야 개선방안 논의

- 3.17.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조세위원회와 조세 분야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여 19.12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금 종류를 13개에서 9개로 축소 시키고 △재산세율을 5%에서 1.5%로 인하,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는 등 조세행정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 우즈베크 정부는 2023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5%에서 12%로 추가 인하하고 이후 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계획

- 또한, 조세부담 완화, 세금납부 절차 간소화 등 조세행정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정보기술 확대 적용, △세수입 안정성 보장, △기업인 대상 조세 지원 제도 등 필요성 강조

□ 우즈베키스탄-EBRD, 협력 현황 및 전망 논의

- 3.23. 우무르자코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제1차 타슈켄트 국제 투자 포럼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오딜 르노-바소(Odile Renaud-Basso) 유럽재건 개발은행(EBRD) 총재와 만남을 갖고 △2018~2023 對우즈베키스탄 국가전략 시행 방안, △우즈베크 섬유에 대한 코튼 캠페인의 보이콧 해제에 따른 섬유산업 협력 활성화,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 △그린에너지, 광업, 제약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및 공동 프로젝트 확대 추진 방안 등 논의

□ 우즈베키스탄, 제1차 타슈켄트 국제 투자 포럼 개최

- 3.2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동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위대한 과거에서 위대한 미래로’ 원칙에 기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5년간 실시한 대규모 민주적 개혁성과 10가지 언급 및 긍정적 평가
 - ① 외환자유화, ②무비자 입국(90개국) 및 비자 발급 간소화(60개국), ③부패 근절, ④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및 보호, ⑤시민사회 발전 및 언론의 자유 보장, ⑥아동 및 강제 노동 근절, ⑦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⑧세계정책을 통한 비즈니스 발전 장려, ⑨해외투자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⑩빈곤 감소
- ※ 투자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해외 파트너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강화 등을 위해 개최된 동 포럼에는 56개국에서 2천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 및 투자자 참석
- 이어 ‘인간의 명예와 존엄’ 원칙하 향후 5년을 위한 ‘New Uzbekistan’ 발전 전략의 주요 방향 7가지와 △GDP 1천억불, △수출액 300억불, △GDP 내 민간부문 80% 달성 등 목표 언급 및 디지털화와 ‘녹색’ 기술, 혁신 중요성 강조
 - ① 국내 경제적, 정치적 안정 보장, ②국가의 경제 개입 축소, ③인프라 발전 강화, ④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촉진, ⑤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⑥무역 자유화 및 수출입을 위한 유리한 조건 추가 마련, ⑦투자 매력도 향상 및 사업 환경 개선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동 포럼 계기 수헤일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장관과 △무역, △투자, △혁신, △농업, △인프라, △물류, △교통 분야 실질적 협력 확대 전망을 논의하고 ‘녹색’ 에너지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
 - ※ Masdar(UAE)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내 총 20억불 이상 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동 포럼 계기 칼리드 알 팔리흐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양국 다각적 협력관계, △석유가스, △가스화학, △화학, △광업, △농업, △보건, △제약 등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황 점검
 - ※ ACWA Power(사우디)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내 총 27억불 규모 에너지인프라 현대화 및 그린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추진 중
- 3.28. 투자대외무역부는 제1차 타슈켄트 국제 투자 포럼의 개최 결과로 78억불 규모 투자 협약서 및 계약이 체결되고 35억불 규모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사전 합의를 달성하였다고 발표

□ 2022.1.1. 기준 우즈베키스탄 대외채무 396억불

- 3.29. 우즈베크중앙은행(CBU)의 발표에 따르면, 2022.1.1.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채무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396억불로 GDP의 57%를 차지하며, 공공부문 대외채무는 11% 증가한 237억불, 민간부문 대외채무는 24% 증가한 158억불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내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 3.3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거시경제 안정화 및 비즈니스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여 세계경제의 현 상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하에 △식품 가격 유지, △환율 및 외환 시장 안정화 등을 강조하고 외부 위협 요소의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한 기업인 지원 방안을 논의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주요 에너지통계

■ 에너지 생산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전력(십억kWh): ('21.2월) 11.9 → ('22.2월) 12.5(4.9%) ('21년: 70.1)
- 가스(bcm) : ('21.2월) 9.1 → ('22.2월) 8.9(△1.8%) ('21년: 53.8)
- 석유(천톤) : ('21.2월) 372 → ('22.2월) 348(△6%) (*가스콘덴세이트 포함) ('21년: 2,098)
- 석탄(천톤) : ('21.2월) 602 → ('22.2월) 879(46.1%) ('21년: 5,054)

■ 에너지 가격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전기(UZS/kWh) : ('21.3월) 450 → ('22.3월) 450(0%) (*산업용) ('21년: 450)
('21.3월) 295 → ('22.3월) 295(0%) (*가정용) ('21년: 295)
- 가스(UZS/m³) : ('21.3월) 1,000 → ('22.3월) 1,000(0%) (*산업용) ('21년: 1,000)
('21.3월) 380 → ('22.3월) 380(0%) (*가정용) ('21년: 380)
- 가솔린(UZS/ℓ) : ('21.3월) 10,200 → ('22.3월) 10,000(△2%) (*Ai-95 기준) ('21년: 10,200)
- 디젤(UZS/ℓ) : ('21.3월) 9,500 → ('22.3월) 10,400(9.5%) ('21년: 9,500)

□ 터키 오다쉬 에너지(Odash Enerji), 호레즘州 화력발전소 가동 착수

- 3.10. 터키 오다쉬 에너지(Odash Enerji) 사는 호레즘州 양기아릭(Yangiariq) 지구에 위치한 174MW 규모 가스피스톤발전소를 가동하였으며, 1.05억불의 사업비가 투입된 동 발전소는 연간 14억 kWh 전력을 생산할 계획

□ 중앙아시아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 발표

- 3.16.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에너지 시스템 운영자 대표가 소속되어있는 Energia Coordinating Dispatch Center(CDC Energia)는 22.1.25. 중앙아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전력 시스템의 정전 및 누르술탄市 고압선에서 단락이 발생함에 따라 시르다리아州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 영향으로 발전소에 인접한 전기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정전이 발생하였다고 발표

- 카자흐스탄 에너지공사 KEGOC는 전력 복구에 카자흐스탄은 4시간, 키르기스스탄은 1일, 우즈베키스탄은 4일이 소요되었다고 설명

□ 프랑스개발청(FAD) - 유럽위원회(EC), 우즈베키스탄 하수도 시스템 개선 지원

- o 3.24. 프랑스개발청(FAD)은 나보이주 카르마나(Karmana) 지역과 카슈카다리아주 샤흐르사브지(Shahrisabz), 키탃(Kitab) 지역의 하수도 시스템 건설 및 재건을 위해 1.05억유로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유럽위원회(EC)는 900만유로 보조금을 제공
- 동 하수도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카르마나 프로젝트 비용은 2,800만 유로, 샤흐르사브지 및 키탃의 경우 9,100만 유로

□ 수르한다리아주 화력발전소 건설 착수

- o 3.24. 타슈켄트 국제 투자 포럼의 일환으로 수르한다리아주 안거라(Angora) 지역에 위치한 1,560MW 규모 화력발전소 착공식이 진행되었으며, 동 행사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크리스티안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최고 경영자, 베아트리체 부폰(Beatrice Buffon) IDEF 이사 등이 참석
- ※ 21.4월 에너지부는 네덜란드 Stone City Energy사와 수르한다리아주 안거라 지역에 1,560MW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
- o 총 사업비 12억불 규모의 동 프로젝트는 Siemens Energy(독일)와 IDEF(프랑스), Stone City Energy(네덜란드)가 PPP방식(운영기간 25년)으로 시행되며, 발전소는 2024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
- ※ 동 발전소는 연간 120억kWh 전력을 생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연간 최소 30억kWh 전력 수출이 가능할 전망

□ 에너지부, IFC 및 EBRD와 협력계약 체결

- o 3.25. 우즈베크 정부는 국제금융공사(IFC)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각 1GW씩 늘어날 예정
- 우즈베크 정부는 20.5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최대 5GW, △풍력 발전설비 용량을 최대 3GW까지 증가를 목표로 발표하였으며, 2021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을 각각 4GW(총 용량 8GW)씩 추가 증가를 지시

※ 우즈벡 정부는 2018년에 IFC, 2019년에 EBRD와 이와 유사한 협력계약을 체결

□ 시르다리아주 복합화력발전소 PPA 체결

- 3.25. 우즈벡 국가전력망공사(NPG)와 EDF(프랑스), Nebras Power(카타르), Sojitz(일본) 및 Kyuden International 컨소시엄과 1600MW 규모 시르다리아주 복합화력발전소 전력구매계약(PPA 25년)을 체결하였으며, 26.1월에 가동될 예정인 동 발전소는 연간 120억 kWh 전력을 생산할 계획

※ 21.11월 에너지부는 국제금융공사(IFC)의 컨설팅 지원으로 추진하는 1,200~1,600MW 규모 시르다리아주 복합화력발전소 PPP사업의 사업자로 프랑스 EDF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전력판매 단가는 kWh당 3.367센트 제시

□ 타슈켄트주 화력발전소 가동식 및 시르다리아주 화력발전소 착공식 개최

- 3.30.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방우 계기 타슈켄트주 화력발전소 가동식 및 시르다리아주 화력발전소 착공식이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참석

※ 타슈켄트주 화력발전소와 시르다리아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사업자는 터키 센기즈 에너지 (Cengiz Enerji)

- 타슈켄트주 키브라이(Kibray) 지구에 위치한 240MW 규모 화력발전소는 연간 20억 kWh 전력을 생산할 예정

- 시르다리아주 하와스트(Khavast) 지구에 위치한 220MW 규모 화력발전소는 건설 완료 후 연간 17억kWh 전력을 생산할 예정

<참고: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황>

- 국토면적 : 44.9만km² (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 3,527만명 (2022.1월 기준)
 - ※ 중앙아 5개국 76.5백만명 (카자흐 19.1백만, 타직 9.5백만, 키르키스 6.6백만, 투르크멘 6.1백만)
- 경제성장(IMF)
 - 명목GDP : (2020) 599.3억불 → (2021) 678억불
 - 1인당 GDP : (2020) 1,767불 → (2021) 1,983불
 - 실질성장률: (2020) 1.7% → (2021) 7.4%
- 교역현황 : (2020) 363억불 → (2021) 421억불(16%)
 - ※ 2021년 수출입 : 수출 166억불(10%), 수입 255억불(20.4%), 무역수지 △89억불
 - ※ 교역순위(억불): ①러시아(75.2), ②중국(74.4), ③카자흐(39.1), ④터키(33.9), ⑤한국(18.9)
- 경상수지 : (2020) △31.4억불 → (2021) △46억불
- 외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FDI): (2020) 28.7억불 → (2021) 28.4억불(30.1조숨)
 - 외국투자기업 수 : 총 13,289개 (2022.1.1. 기준)
 - ※ 국별순위: ①러시아 2,309개, ②중국 1,927개, ③터키 1,882개, ④카자흐 1,067개, ⑤한국 896개
- 투자환경
 - 국가신용등급(S&P) : BB-(장기)/B(단기)
 - 기업환경평가(세계은행, Doing Business) : 69위/190(2020)
 - 경제자유지수(해리티지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 108위/186(2021)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40위/180(2021)
- 지역경제

연번	지역명	면적(천km ²)	인구(천명)	지역총생산(2021)	
				조숨	비중(%)
1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66.6	1,948.5	26.3	3.6
2	안디잔주	4.3	3,253.5	43.8	6.0
3	부하라주	40.2	1,976.8	38.7	5.3
4	지작주	21.2	1,443.4	23.3	3.2
5	카슈카다리아주	28.6	3,408.3	43.8	6.0
6	나보이주	111.1	1,033.9	59.4	8.1
7	나망간주	7.4	2,931.1	34.5	4.7
8	사마르칸트주	16.8	4,031.3	53.7	7.3
9	수르한다리아주	20.1	2,743.2	30.1	4.1
10	시르다리아주	4.3	878.6	15.6	2.1
11	타슈켄트주	15.2	2,941.6	82.1	11.2
12	페르가나주	6.8	3,896.4	47.3	6.4
13	호레즘주	6.1	1,924.2	26.9	3.7
14	타슈켄트시	0.3	2,860.5	121.8	16.6